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예수 제목 : 예수님이 믿으세요! 성경: 요한복음
11장45-54절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힘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이러라

53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애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요11:45-54)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중심 주제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첫 번째는 부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심지어 제자들도 부활이 세상 끝날에나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심을 계시하셨다. 지금 당장 부활하게 되리라고 말씀 하

셨고, 그대로 이루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도, 마술도 아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야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야이심을 믿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구약성경 전체가 어찌면 구원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을 담고 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 하신 일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관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 영적으로 보면 관계회복이 곧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회복이 영혼을 살린다!)

창세기에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 노아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그리고 그 관계를 굳히기 위해서 그 한 사람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구원에 대한 계시를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전통을 세우셨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후 포로기 까지는 우상전통과 율법전통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행히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전통을 확립하였다. 더 이상 우상에게 끌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율법전통의 초점은 복음을 향해서 맞추어져있다.

하는 수 없이 마귀는 율법 속에 침투해서 언어유희를 벌이기 시작했

다. 그 결과 점차 율법은 율법주의로 고착화되었다.

진정으로 복음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왜냐면 이미 율법은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마태 5-7장)

율법주의의 중심에 서있는 자들이 곧 율법에 정통한다고 자부하는 유행선생,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다.

52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눅11:52)

그래서 아무리 많은 가르침과 기적과 경험을 통해서도 결코 믿게 할 수 없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곧 율법주의자들이었다.

물론 이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의 지위와 수입과,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이 얹혀 있었다. 그래서 쉽사리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은 아니었다. 그들도 자존심이 얼마나 불편한 옷인지 모르지 않았으리라.

그들도 가문의 명예나 자신의 지위와 수입보다도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쯤은 알았으리라.

또 예수님의 메시야라는 증거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서슴없이 악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율법주의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살인이나 거짓말, 선동, 협박, 아전인수격인 해석들을 자행한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명백하게 마귀의 편에 선 것을 증명할 뿐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이 이념화 되어 믿음의 수준

에 도달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빌미로 작용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택하셨지 율법을 택한 것은 아니다. 율법은 복음을 위한 도구였다.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눅16:16)

복음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 율법은 윤리나 제사, 정결의식 등에 집중되어 있다면 복음은 예수님의 행동, 인격, 관계, 믿음, 뒤에 오시는 성령등에 집중되어 있다.

복음은 종교적 의식, 제사법, 정결법, 직제 등에 크게 관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야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가지고 오신 천국, 천국의 증거들,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운동이지, 교리싸움이 아니다.

예수님도 교리논쟁이 시작되면 많이 대꾸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피하셨다.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로마사람들의 통치를 반대하지 않았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때 로마제국은 복음에 도움이 되었지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도 그럴듯한 말이지만, 자신의 욕심이 감추어져 있는 말이다. 말 자체는 옳다. 그러나 그 속에 선한 의도는 없다.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령께서 마땅한 말을 그 입에 넣어 주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그 예언의 말에 자신의 욕심을 숨겨서 말하였다.

이 말대로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복음에 자기의 욕심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계신다. 예수의 복음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기로 결단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하나님 제목: 언약하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12절

-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 2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 3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 5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 6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 7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 8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원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 9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 10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섭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 11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12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 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렘11:1-12)

2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 언약의 말은 율법.
 -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 사실 십계명으로 충분함.
- 3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 요즘에는 언약의 말을 따르는 것이 보다 수월함.
 - 그러나 당시에는 쉽지 않았음.
 - 전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렵다.
 - 특히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 반드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
 - 그래서 불순종할 때 저주가 됨.
 -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죄의 저주 아래에 있음.
 -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율법의 언약을 어기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 쇠 풀무 애굽 땅; 철을 연단하는 풀무. 이 풀무를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율법을 얻게 됨.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중요함.
-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사람은 목소리를 따른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설교전통이다. 캐톨릭은 율법 때문에 한 때 이 전통을 잃었다.
- 목소리를 들어야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고, 순종해야 복이 되고 전진과 부흥이 임한다.

5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 예레미야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뜻.

6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율법에 대한 순종은 일회적이다, 끊임없는 언약.

– 언약을 지킴으로 그 속에 있는 복음이 익어간다.

–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수많은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가 차서 결국에는 메시야의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다.

–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 재림은 복음의 증거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 깨닫지 못하였다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 이단들은 미리 지옥을 맛보는 자들에 불과하다.

8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원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9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10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11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